

한국 축구,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눈앞



▲ 조규성이 선제골을 터트린 뒤 황의조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가 레바논 원정에서도 승전가를 부르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바로 눈앞에 뒀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7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46분 조규성(김천)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벤투 감독은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

튼의 공백을 채울 4-4-2 전술로 최전방 투톱으로 황의조(30,지용맹 드 보르도)와 조규성을 세웠다.

한국은 전반 초반부터 레바논을 상대로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레바논은 경기 시작 10분이 채 안돼 첩대축구를 시전했다. 한국은 레바논의 골문을 무수하게 두들겼지만 레바논의 수비를 좀처럼 뚫지 못하다가 전반 추가시간 조규성이 기회를 잡았다. 황의조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조규성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원터치 밀어 넣어 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한국은 5승 2무(승점 17)로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레바논과 통산 전적에서도 12승 3무 1패의 절대 우위를 이어갔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A·B조 1, 2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조 3위까지는 플레이오프(PO)를 치른 뒤 승자가 대륙 간 PO에서 남미 예선의 5위 팀과 카타르를 향한 마지막 경쟁을 벌이게 된다.

한국 대표팀은 2월 1일 오후 11시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최종예선 8차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10회 연속이자 통산 11번째 본선 진출이 확정된다.

오티즈, MLB '명예의 전당' 입성

미국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강타자로 현역 시절 541홈런을 때린 데이비드 오티즈(47)가 명예의 전당 입성에 성공했다. 마지막 입성 기회를 노리던 배리 본즈(58)와 로저 클레멘스(60)는 끝내 좌절했다.



▲ 현역 시절 데이비드 오티즈. 사진= wikipedia.org

지난 26일 '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는 이날 2022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오티즈가 유효표 397장 중 307장의 지지표를 끌어내 득표율 77.9%를 기록했다. 명예의 전당 입성을 위해서는 75% 이상의 지지율이 필요하다.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762개에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인 73개도 때린 이력이 있는 본즈는 끝내 금지 약물 전력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했다. 통산 7회 사이영상수에 빛나는 클레멘스 또한 금지 약물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본즈가 66%, 클레멘스가 65.2%의 득표율로 입성에 실패한 가운데 역시 10번째 입후보했던 커트 실링(58.6%)과 새미 소사(18.5%)도 명예의 전당 현역 기회를 놓쳤다.

이들은 '배터리 위원회'를 통해 명예의 전당 입성 기회를 노릴 수는 있다. 그러나 정식 절차를 거쳐 현역된 경우만큼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

오티즈 역시 약물 논란 속에 있었지만 첫 기회에서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

오티즈는 2016년까지 메이저리그 20시즌 동안 2,408경기에 출장해 타율 2할8푼6리, 541홈런, 1,768타점을 기록했다. 2003년부터 보스턴에서 14시즌을 뛰면서 일명 '밤비노의 저주'를 깨고 2004년과 2007년, 2013년 팀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PGA 투어 코스 너무 쉬워서 불만"



남자 골프 세계 1,2위인 온 램(스페인)과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코스 세팅이 너무 쉽고 비판했다.

▲ 2021 US오픈 최종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우승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는 온 램. 사진= brobble.com

PGA 투어는 지난 6일 개막한 센트

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로 올해 올해 일정을 시작했다. 당시 캐머런 스미스(호주)는 34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이어진 소니 오픈에서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는 허드슨 스와포드(미국)가 23언더파로 우승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끝난 후 코스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3개 대회 연속으로 매우 낮은 타수의 우승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메이저 대회에서는 디오픈을 제외하고 우승자가 10언더파를 넘지 못했다.

이에 세계 랭킹 1위 온 램은 쉬운 코스 세팅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1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라운드 도중 램은 "망할 코스 세팅. 이걸 그냥 퍼팅 콘테스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 호야의 토리 파인스 골프장 남·북코스(파72)에서 열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750만 달러)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인터뷰에서 "우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고,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데 페어웨이를 벗어나는 게 아무 것도 아닌 상황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램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라운드에서 퍼트를 마치고 다음 티박스로 이동하면서 "망할 놈의 코스세팅. 이걸 뭐, 퍼팅 콘테스트네."라고 혼자 중얼거린게 촬영돼 SNS에 공개되는 바람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